

인천지역 초등학생의 한국 전통음식에 대한 인식과 지식에 관한 연구

강명선¹ · 천종희^{2*}

¹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²인하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식품영양학과

A Study on the Perception and the Knowledge of the Korean Traditional Food in the Elementary Schoolchildren of Incheon

Myoung-seon Gang¹, Jong-Hee Chyun^{2*}

¹Departmen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²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Inha University, Incheon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and the knowledge of the Korean traditional foods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For the investigation, 373 fifth-grade elementary school students in Incheon were surveyed by a questionnaire, and the data were analyzed by the SPSS 10.0 program.

The result showed that 85% of the surveyed schoolchildren showed the interest in the Korean traditional foods. It also revealed that female students are more interested in the traditional food than male students and the children of the career woman are more interested than those of the housewives.

As for the motive of their interest, 39.7% of the subjects answered 'through mass media'. Male students and the children of the housewives got the interest through their mother, and female students and the children of the career woman got the interest through their hobby of cooking food.

Among the traditional foods, 76.4% of the children designated kimchi as the most proud traditional food.

As for the reasons of reducing traditional food use, 39.9% of students responded because of 'not-tasty' and 28.7% of students replied because of 'not enough time to cook'. But 62.2% of the subjects thought the traditional foods should be more used in the future. As for the succession and development of the traditional foods, 33.8% of the subjects said it should be carried out by the family.

The basic knowledge score of the traditional foods was 5.78 on a scale of 10, which showed relatively low level. The lower their basic knowledge, the less their interest in the traditional foods was.

The samgyetang, ogokbap and bindaetteok were the most perceived traditional foods. The cheonggukjang, nabakgimchi and jindallaehwajeon were the foods they had seen, but they did not have heard or seen the others. Among the traditional foods, susugyeongdan, jindallaehwajeon and dasik were more perceived by the schoolchildren in the rural area than those in the urban area. The jindallaehwajeon and dasik were more perceived by female students than by male students.

Therefore, in order to make elementary schoolchildren take the traditional foods with pride by increasing their perception and knowledge of them, the family should give them many opportunities to eat traditional foods. The school also should try to establish a cooperative relationship to the family of schoolchildren and use more Korean traditional foods in the school's meal program. Furthermore, the society's concern and support are necessary and also the role of mass media, which have great influence on children, is important.

Key Words : Perception and knowledge, Korean traditional food, Elementary schoolchildren, Gender, Urban and Rural area

I. 서 론

한 나라의 고유한 생활 문화는 그 나라의 지리적 위치와 정치, 경제, 사회적 여건 그리고 역사 속에 누적된 그 민족 특유의 문화적 배경에 의해서 형성되고 발전한다. 특히 식생활문화는 생활문화 중에서도 보편성과 토착성이 짙어 그 민족 고유의 문화와 함

께 계승·발전하여왔고, 오천년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로 고유한 생활문화를 형성해 왔다(Hong 등 1999).

우리의 전통음식은 19C 말엽에 서양으로부터 새로운 식품과 조리법, 식생활 습관 등이 전해지면서 많은 변화를 거치기 시작하였다(Kye & Kim, 1994). 고도의 경제성장과 급속한 산업의 발달로 식생활도 점차 간소화와 편의성을 추구하는 경향으로 흐

* Corresponding author : Jong-Hee Chyun,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Inha University, 253 Yonghyundong, Namgu, Incheon 402-751, Korea
Tel : 82-32-860-8123 Fax : 82-32-862-8120 E-mail : jhchyun@inha.ac.kr

르게 되었으며, 동시에 식품산업의 발달과 수입 개방화·국제화에 따른 외래 식품의 도입은 음식 선택의 폭을 확대 시켰고,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외식산업의 확대 등은 한국인의 식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Han 등 1989; Kim 등 1992).

이러한 식생활의 변화는 아동들의 식습관과 식품기호에도 많은 영향을 주어, 아동들이 전통음식보다는 서구식 패스트푸드를 선호하게 만들었다. 동물성 식품이나 청량음료, 패스트푸드나 간편식을 선호하는 식생활의 변화는 성장기 아동들에게 비만을 유발하는 등 영양의 불균형과 함께 우리의 고유한 식생활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며, 전통음식에 대한 아동들의 인지도를 낮추어 왔다(Cho 2000).

어릴 때 형성된 식습관이나 식품기호는 그 이후의 식품선택에 영향을 주어 결국 일생 동안의 영양 상태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므로, 어린 시절의 좋은 식습관 형성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초등학교 고학년 시기는 신체적 성장뿐만 아니라 사물을 판단하고 종합하는 인지 능력의 성숙과 함께 자아 개념의 발달이 이루어지면서 서서히 사춘기로 접어드는 중요한 시기이므로, 이 시기의 아동들에게 우리 전통음식을 자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전통음식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궁지를 갖도록 하는 것은, 미래 식문화의 형성과 발전 뿐 아니라 국민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Jung 1995; Lee 1995). 식습관이나 식품기호 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자신에 의한 내적요인과 가정환경 등의 외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는데, 아동의 식사는 주로 가정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므로 가족 구성원 가운데 특히 식생활 관리자인 어머니의 영향이 절대적이라고 하겠다(Jung 1995; Lee 1993; Yang 등 1993; Yim & Kim 1986). 더욱이 어머니의 식습관과 자녀의 식습관이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고, 어머니의 식생활과 식습관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세대인 자녀들에게 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고려할 때, 가정의 식생활 관리자인 어머니가 올바른 영양지식을 가지고 식생활을 영위해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전통음식에 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전통음식의 올바른 계승·발전과 이용도를 높이기 위해 가정에서 주부들이 전통음식에 대한 자부심과 궁지를 갖고 다양한 재료와 조리법을 이용해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자주 전통음식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며, 아울러 전통음식의 우월성 등이 학교 교육 및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바쁜 일상생활을 하는 현대인이 전통음식을 많이 이용하기 위해서는 조리과정의 간편화, 맛의 현대화, 가공 식품화, 위생적인 조리법 등 전통음식의 개발과 대중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Kang & Chyun 1998; Kim 1995; Kim 2000; Park 1998).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래의 식문화를 형성하고 발전시켜 나갈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국 전통음식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지리적 환경이 서로 다른 도시와 농촌, 또한 남녀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II. 연구 내용 및 방법

1. 조사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인천지역의 5개 교육청 중 동부교육청 소재 3개 학교와 강화교육청 소재 9개 학교의 5학년 학생 4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04년 4월 20일부터 5월 7일까지 실시하였으며, 420부 중 응답이 불성실한 설문지 47부를 제외한 373부(회수율 88.8%)를 통계 처리하여 자료로 이용하였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본 조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여러 선행연구의 설문내용을 참고로 하여 작성한 후 초등학교 5학년 학생 38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문항을 수정·보완하여 사용하였다(Kim 1995; Lee 등 1993).

조사내용은 일반적 특성 6문항, 전통음식에 대한 인식 10문항, 지식 10문항과 인지 정도 1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으로 거주지역, 성별, 가족구성 형태, 그리고 초등학생들의 식생활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되는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 그리고 어머니의 취업여부 등을 조사하였다.

2) 전통음식에 대한 인식

전통음식에 대한 인식은 관심 정도, 건강에 미치는 영향,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음식, 이용 정도, 계승·발전에 관한 생각을 거주지역, 성별, 가족구성 형태, 어머니의 연령·학력·취업여부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3) 전통음식에 대한 지식과 인지 정도

전통음식에 대한 지식 10개 문항의 답은 '예.', '아니오.'로 표시하도록 하였고, 거주지역, 성별, 가족구성 형태, 어머니의 연령·학력·취업여부에 따른 차이를 조사하였다. 또한 전통음식에 대한 인지정도는 절기음식을 위주로 15개 문항을 선정하여 '들어본 적이 없다.' '들어본 적은 있으나 본 적은 없다.' '본 적은 있으나 먹어 본 적은 없다.' '먹어본 적은 있으나 무엇으로 만드는지 모른다.' '먹어본 적도 있고 무엇으로 만드는지도 잘 안다.'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하여 거주지역과 성별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3. 자료의 처리

본 연구에서 조사된 모든 자료는 SPSS 10.0 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모든 경우에 $p < 0.05$ 이상 일 때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거

주지역, 성별, 가족구성 형태, 어머니의 연령·학력·취업여부에 따른 전통음식에 관한 인식 정도 비교는 χ^2 로 분석하였다.

또한 전통음식에 대한 지식은 각 문항 당 1점씩, 10점 만점으로 하여 평균점수를 구한 후 거주지역, 성별, 가족구성 형태, 어머니의 연령·학력·취업여부에 따라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전통음식의 인지 정도는 Likert 5점 척도법(1점: 들어본 적이 없다. 2점: 들어본 적은 있으나 본 적은 없다. 3점: 본 적은 있으나 먹어 본 적은 없다. 4점: 먹어본 적은 있으나 무엇으로 만드는지 모른다. 5점: 먹어본 적도 있고 무엇으로 만드는지도 잘 안다.)을 사용하여 평균점수를 구한 후 점수가 높을수록 해당문항에 대한 인지 정도가 높은 것으로 간주하였고 거주지역과 성별에 따른 차이는 Student t-test로 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자의 성별, 가족구성 형태, 어머니의 연령과 학력, 어머니의 취업여부 등을 거주지역에 따라 분류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거주지역은 도시가 55.0%, 농촌이 45.0%, 성별은 남학생이 47.7%, 여학생이 52.3%로 조사되었다. 가족구성의 형태는 80% 정도가 핵가족이었고, 확대가족의 경우 도시보다는 농촌의 비율이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어머니의 연령은 31~35세가 12.9%, 36~40세가 56.8%, 41세 이상이 30.3%로 36~40세가 가장 많았다.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 이상이 57.6%로 가장 많았으며, 농촌보다는 도시 어머니의 학력이 대체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어머니의 취업여부는 취업주부가 58.4%로 전업주부보다 많았으며, 도시보다 농촌 어머니들의 취업률이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

		urban	rural	total
Gender	male	109(53.2)	69(41.1)	178(47.7)
	female	96(46.8)	99(58.9)	195(52.3)
	total	205(55.0)	168(45.0)	373(100)
Family type	extended	28(13.7)	46(27.4)	74(19.8)
	nuclear	177(86.3)	122(72.6)	299(80.2)
	total	205(55.0)	168(45.0)	373(100)
Age of mother (yr)	31~35	25(12.2)	23(13.7)	48(12.9)
	36~40	109(53.2)	103(61.3)	212(56.8)
	≥41	71(34.6)	42(25.0)	113(30.3)
	total	205(55.0)	168(45.0)	373(100)
Education of mother	≤ middle school	14(6.8)	13(7.7)	27(7.2)
	high school	100(48.8)	115(68.5)	215(57.6)
	≥ college	91(44.4)	40(23.8)	131(35.1)
	total	205(55.0)	168(45.0)	373(100)
Occupation of mother	no	91(44.4)	64(38.1)	155(41.6)
	yes	114(55.6)	104(61.9)	218(58.4)
	total	205(55.0)	168(45.0)	373(100)

더 높게 조사되었다. 이처럼 농촌 어머니들의 취업률이 높게 조사된 것은 인접지역에 일자리를 구하기 쉬운 공장지대가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 한국 전통음식에 대한 인식

1) 관심 정도

전통음식에 대한 관심 정도는 〈Table 2〉와 같이 37% 정도가 '관심이 있는 것'으로, 48%가 '보통'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관심이 없다.'고 대답한 경우는 15% 정도에 지나지 않아 비교적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인천지역의 남여 초등학생

〈Table 2〉 Degree of Interest in traditional foods

		very interest	a little interest	fair	almost no interest	never interest	χ^2
Residence	urban	17(4.6)	55(14.7)	107(28.7)	17(4.6)	9(2.4)	4.020
	rural	14(3.7)	53(14.3)	72(19.3)	21(5.6)	8(2.1)	
	total	31(8.3)	108(29.0)	179(48.0)	38(10.2)	17(4.5)	
Gender	male	13(3.5)	54(14.5)	79(21.2)	20(5.4)	12(3.2)	5.494
	female	18(4.8)	54(14.5)	100(26.8)	18(4.8)	5(1.3)	
	total	31(8.3)	108(29.0)	179(48.0)	38(10.2)	17(4.5)	
Family type	extended	9(2.4)	24(6.4)	36(9.7)	3(0.8)	2(0.5)	6.147
	nuclear	22(5.9)	84(22.6)	143(38.3)	35(9.4)	15(4.0)	
	total	31(8.3)	108(29.0)	179(48.0)	38(10.2)	17(4.5)	
Age of mother (yr)	31~35	6(1.6)	13(3.5)	24(6.4)	4(1.1)	1(0.3)	6.377
	36~40	12(3.2)	60(16.1)	105(28.2)	24(6.4)	11(2.9)	
	≥41	13(3.5)	35(9.4)	50(13.4)	10(2.7)	5(1.3)	
	total	31(8.3)	108(29.0)	179(48.0)	38(10.2)	17(4.5)	
Education of mother	≤ middle school	3(0.8)	9(2.4)	9(2.4)	5(1.3)	1(0.3)	6.329
	high school	16(4.3)	62(16.7)	102(27.4)	23(6.2)	12(3.2)	
	≥ college	12(3.2)	37(9.9)	68(18.2)	10(2.7)	4(1.0)	
	total	31(8.3)	108(29.0)	179(48.0)	38(10.2)	17(4.5)	
Occupation of mother	no	12(3.2)	45(12.1)	74(19.8)	17(4.6)	7(1.8)	0.267
	yes	19(5.1)	63(16.9)	105(28.2)	21(5.6)	10(2.7)	
	total	31(8.3)	108(29.0)	179(48.0)	38(10.2)	17(4.5)	

을 대상으로 한 연구(Min 1999)와, 서울지역의 남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Lee 1995) 등과 같은 경향을 보였다. 또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취업주부의 자녀가 전업주부의 자녀보다 높은 관심을 보였다.

2) 관심을 갖게 된 동기

전통음식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동기는 〈Table 3〉에 나타난 것과 같이 ‘매스컴을 통해서’가 39.7%로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Min 1999; Lee 2002)의 경우와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Lee 1995)의 결과와는 일치하였으나, 여고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Park & Kim 1991)와 주부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Jang 등 1996; Park 1998)에서 ‘가정교육을 통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많은 결과와는 차이가 있었다.

다음으로 남학생은 ‘가정에서 어머니의 교육을 통해서’, 여학생은 ‘음식만들기 취미’라고 답하여 남녀간에 유의적인 차이($p<0.05$)를 보였다. 또한 전업주부의 자녀는 ‘가정에서 어머니의 교육을 통해서’, 취업주부의 자녀는 ‘음식만들기 취미’로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답하여 어머니의 취업여부에 따라서도 유의적인 차이($p<0.05$)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전통음식에 대한 가정에서의 어머니 역할이 중요하며,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해 가정에서 보다는 매스컴을 통해 관심을 갖게 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에서 급식을 통해서’는 13.9%로 가장 낮게 나타나 학교급식이 전통음식에 대한 아동들의 관심에 크게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학교급식이 학생들에게 전통음식을 접하게 되는 매개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초등학생을 대

상으로 한 연구(Oh 2002) 결과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학교에서는 우리 전통음식에 대한 영양학적 우수성과 식생활 문화 등을 특별활동이나 관련 교과목 시간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알리고 또한 급식으로 자주 제공함으로써, 가정에서 어머니의 취업으로 인해 소홀해진 전통음식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고 아동들의 입맛이 전통음식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또한 급식으로 제공되는 당일의 음식 중 특별한 전통음식에 대한 설명 등을 포스터로 작성하여 식당 또는 급식장소에 제시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시켜 관심을 갖게 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된다.

3)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음식

초등학생들의 76.4%는 전통음식 중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음식을 〈Table 4〉와 같이 ‘김치’라고 응답하여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Min 1999)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Lee 2000),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Lee 1995; Park & Kim 1991), 그리고 김치에 대한 세대별 차이를 조사한 연구(Yoo 2003)의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그러나 이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다른 연구(Lee 2002)에서 가장 맛있다고 생각하는 전통음식 중 ‘김치’가 차지하는 비율이 14.5%로 나타난 것과 관련지어 보면, 초등학생들은 김치에 대한 기호도는 낮으나, 김치의 영양학적 우수성 등 우리 김치에 대한 매스컴 등의 홍보 영향을 받아 ‘김치’를 가장 자랑스러운 음식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치’ 다음으로는 성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남학생은 ‘불고기·갈비찜’을, 여학생은 ‘비빔밥’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Table 3〉 Motives of having interest in traditional foods

		mother's education	school food service	mass media	hobby in cooking	N(%)	χ^2
Residence	urban	39(12.3)	21(6.6)	76(23.9)	37(11.7)		
	rural	32(10.1)	23(7.3)	50(15.8)	39(12.3)		
	total	71(22.4)	44(13.9)	126(39.7)	76(24.0)		3.576
Gender	male	36(11.4)	22(6.9)	63(19.9)	23(7.3)		
	female	35(11.0)	22(6.9)	63(19.9)	53(16.7)		
	total	71(22.4)	44(13.9)	126(39.7)	76(24.0)		9.281*
Family type	extended	15(4.7)	9(2.9)	27(8.5)	17(5.4)		
	nuclear	56(17.7)	35(11.0)	99(31.2)	59(18.6)		
	total	71(22.4)	44(13.9)	126(39.7)	76(24.0)		0.068
Age of mother (yr)	31~35	14(4.4)	4(1.3)	14(14.4)	9(2.9)		
	36~40	39(12.3)	26(8.2)	67(21.1)	42(13.2)		
	≥ 41	18(5.7)	14(4.4)	45(14.2)	25(7.9)		
	total	71(22.4)	44(13.9)	126(39.7)	76(24.0)		5.166
Education of mother	\leq middle school	9(2.9)	5(1.6)	7(2.2)	2(0.6)		
	high school	42(13.2)	25(7.9)	68(21.5)	46(14.5)		
	\geq college	20(6.3)	14(4.4)	51(16.0)	28(8.9)		
	total	71(22.4)	44(13.9)	126(39.7)	76(24.0)		9.216
Occupation of mother	no	33(10.4)	25(7.9)	41(12.9)	26(8.2)		
	yes	38(12.0)	19(6.0)	85(26.8)	50(15.8)		
	total	71(22.4)	44(13.9)	126(39.7)	76(24.0)		10.419*

* $p < 0.05$

<Table 4> The most proud Korean traditional food

		kimchi	bulgogi	bibimbab	rice cake	vegetables	bean pastes	beverages	porridges	N(%)	χ^2
Residence	urban	164(43.9)	11(2.9)	11(2.9)	5(1.3)	1(0.3)	3(0.8)	9(2.4)	1(0.3)		
	rural	121(32.5)	16(4.3)	18(4.9)	2(0.5)	1(0.3)	1(0.3)	6(1.6)	3(0.8)		
	total	285(76.4)	27(7.2)	29(7.8)	7(1.9)	2(0.5)	4(1.1)	15(4.0)	4(1.1)		9.411
Gender	male	134(35.9)	16(4.3)	11(2.9)	2(0.6)	-	4(1.1)	8(2.1)	3(0.8)		
	female	151(40.5)	11(2.9)	18(4.9)	5(1.3)	2(0.5)	-	7(1.9)	1(0.3)		11.231
	total	285(76.4)	27(7.2)	29(7.8)	7(1.9)	2(0.5)	4(1.1)	15(4.0)	4(1.1)		
Family type	extended	53(14.2)	6(1.6)	9(2.4)	1(0.3)	1(0.3)	-	2(0.6)	2(0.6)		
	nuclear	232(62.2)	21(5.6)	20(5.4)	6(1.6)	1(0.3)	4(1.1)	13(3.4)	2(0.6)		7.616
	total	285(76.4)	27(7.2)	29(7.8)	7(1.9)	2(0.5)	4(1.1)	15(4.0)	4(1.1)		
Age of mother (yr)	31~35	40(10.7)	4(1.1)	2(0.6)	-	1(0.3)	-	1(0.3)	-		
	36~40	157(42.1)	18(4.9)	18(4.9)	5(1.3)	-	2(0.6)	11(2.9)	1(0.3)		
	≥ 41	88(23.6)	5(1.3)	9(2.4)	2(0.6)	1(0.3)	2(0.6)	3(0.8)	3(0.8)		14.534
	total	285(76.4)	27(7.2)	29(7.8)	7(1.9)	2(0.5)	4(1.1)	15(4.0)	4(1.1)		
Education of mother	\leq middle school	20(5.4)	2(0.6)	3(0.8)	1(0.3)	1(0.3)	-	-	-		
	high school	161(43.2)	17(4.5)	16(4.3)	3(0.8)	1(0.3)	2(0.6)	11(2.9)	4(1.1)		
	\geq college	104(27.8)	8(6.1)	10(2.7)	3(0.8)	-	2(0.6)	4(1.1)	-		13.217
	total	285(76.4)	27(7.2)	29(7.8)	7(1.9)	2(0.5)	4(1.1)	15(4.0)	4(1.1)		
Occupation of mother	no	115(30.8)	11(2.9)	15(4.0)	3(0.8)	1(0.3)	1(0.3)	7(1.9)	2(0.6)		
	yes	170(45.6)	16(4.3)	14(3.8)	4(1.1)	1(0.3)	3(0.8)	8(2.1)	2(0.6)		
	total	285(76.4)	27(7.2)	29(7.8)	7(1.9)	2(0.5)	4(1.1)	15(4.0)	4(1.1)		2.206

4) 이용횟수가 줄어드는 이유

최근 고도의 경제성장과 급속한 산업의 발달,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는 우리의 식생활에도 변화를 주어 전통음식을 이용하는 횟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데 이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생각은 <Table 5>와 같이 나타났다. ‘입맛에 맞지 않아서’가 39.9%, ‘만들 시간이 없어서’가 28.7%, ‘조리방법을 몰라서’가 22.5%, ‘영양적으로 우수하지 못해서’가 8.8% 순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통음식에 대한 영양학적 우수성은 많은 초등학생들이 알고 있으나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가공식품과 조리가 간편한 인스턴트음식에 입맛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어릴 때 형성된 식습관이나 식품기호가 일생 동안의 영양상태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가정과 사회가 상호협력을 통해 우리음식을 쉽게 조리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일상생활에서 우리음식 먹이기

<Table 5> Reasons of reducing traditional food use

		not enough time cook	don't know how to cook	less nutritive	not tasty	χ^2
Residence	urban	53(14.2)	43(11.5)	21(5.6)	88(23.6)	
	rural	54(14.5)	41(11.0)	12(3.2)	61(16.3)	
	total	107(28.7)	84(22.5)	33(8.8)	149(39.9)	
Gender	male	37(9.9)	44(11.8)	17(4.6)	80(21.4)	
	female	70(18.8)	40(10.7)	16(4.2)	69(18.5)	
	total	107(28.7)	84(22.5)	33(8.8)	149(39.9)	
Family type	extended	16(4.2)	18(4.8)	11(2.9)	29(7.8)	
	nuclear	91(24.5)	66(17.7)	22(5.9)	120(32.1)	
	total	107(28.7)	84(22.5)	33(8.8)	149(39.9)	
Age of mother (yr)	31~35	9(2.4)	13(3.5)	5(1.3)	21(5.6)	
	36~40	63(16.9)	47(12.6)	21(5.6)	81(21.7)	
	≥ 41	35(9.4)	24(6.4)	7(1.8)	47(12.6)	
	total	107(28.7)	84(22.5)	33(8.8)	149(39.9)	
Education of mother	\leq middle school	6(1.6)	7(1.8)	4(1.1)	10(2.7)	
	high school	71(19.0)	47(12.6)	16(4.2)	81(21.7)	
	\geq college	30(8.1)	30(8.1)	13(3.5)	58(15.5)	
	total	107(28.7)	84(22.5)	33(8.8)	149(39.9)	
Occupation of mother	no	47(12.6)	35(9.4)	15(4.0)	58(15.5)	
	yes	60(16.1)	49(13.1)	18(4.8)	91(24.4)	
	total	107(28.7)	84(22.5)	33(8.8)	149(39.9)	

**p < 0.01

운동을 전개하여, 학교급식 식단에 우리음식을 포함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우리 전통음식의 맥을 이어가야 할 것이다.

성별에 따라서는 남학생은 '입맛에 맞지 않아서', 여학생은 '만들 시간이 없어서'를 가장 큰 이유로 들고 있어 남·여간에 유의적인 차이($p<0.01$)를 보였다.

5) 앞으로의 이용 정도

앞으로의 식생활에서 전통음식을 현재보다 더 많이 이용하는 것에 대한 초등학생들의 생각은 <Table 6>과 같다. '현재보다 더 많이 이용해야 한다.'가 62.2%, '현재 그대로가 좋다.'가 35.4%로 대부분의 초등학생들은 현재 식생활에 전통음식의 이용도가 낮음을 스스로 인식하고 있으며, 따라서 앞으로는 이를 더욱 많이 이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초등학생(Min 1999), 중학생(Lee 2000), 고등학생(Lee 1995), 대학생(Lee 등 1993) 등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 결과들과도 일치하여, 모든 학년 층에서 전통음식을 더 많이 이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으나 농촌 보다는 도시지역 학생이,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이 전통음식을 현재보다 더 많이 이용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생각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제도적 지원이 절실하다고 본다.

6) 계승·발전시켜야 할 기관

전통음식을 계승·발전시켜야 할 기관은 <Table 7>와 같이 '가정'이 33.8%, '매스컴'이 27.9%, '정부'가 20.1%, '학교'가

18.2%라고 생각하고 있어, 초등학생(Min 1999), 중학생(Kang & Chyun 1998), 고등학생(Lee 1995), 주부(Jang 등 1996) 등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들과도 일치해 연령에 구분 없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정' 다음으로 남학생은 '정부', 여학생은 '매스컴'이라고 하였으며 남녀간에 유의적인 차이($p<0.01$)를 보였다. 또한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의 자녀들은 '정부'에 대해 다른 군보다 높은 비중을 두고 있어 어머니의 학력에서도 유의적인 차이($p<0.05$)를 보이고 있다.

3. 한국 전통음식에 대한 지식

1) 기초지식

전통음식에 관한 아동들의 기초지식 점수는 <Table 8>과 같다. 10점 만점에 전체 평균점수가 5.78점으로 이를 <Table 2>에 전통음식에 대한 관심이 비교적 많은 것과 관련지어 보았을 때 본 조사 대상 아동들은 전통음식에 대해 관심은 있으나 이에 대한 지식은 대체로 부족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른 조사(Min 1999)에서 기초지식이 대체로 높게(2.0 점 만점에 평균 점수 1.75점) 나타난 것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아동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매스컴이나 가정, 학교에서는 전통음식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우리의 식생활문화가 아동들에게 바르게 전승될 수 있도록 전통음식을 우리의 문화와 관련하여 소개하고 대중화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도시지역, 남학생, 확대가족, 어머니의 학력이 높은 아동, 그리고 취업주부의 아동이 유의하지는 않으나 기초지식 점수가 약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어머니의 연령이 36~40세인 아동들은 기초지식 점수가 5.9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어머니의

<Table 6> Future plan to use traditional food

		more than present	same as present	less than present	χ^2	N(%)
Residence	urban	133(35.7)	68(18.2)	4(1.1)	1.560	
	rural	99(26.5)	64(17.2)	5(1.3)		
	total	232(62.2)	132(35.4)	9(2.4)		
Gender	male	106(28.4)	68(18.2)	4(1.1)	1.312	
	female	126(33.8)	64(17.2)	5(1.3)		
	total	232(62.2)	132(35.4)	9(2.4)		
Family type	extended	43(11.5)	28(7.5)	3(0.8)	1.023	
	nuclear	189(50.7)	104(27.9)	6(1.6)		
	total	232(62.2)	132(35.4)	9(2.4)		
Age of mother (yr)	31~35	29(7.8)	17(4.6)	2(0.5)	3.108	
	36~40	126(33.8)	81(21.7)	5(1.3)		
	≥41	77(20.6)	34(9.1)	2(0.5)		
	total	232(62.2)	132(35.4)	9(2.4)		
Education of mother	≤ middle school	14(3.8)	11(2.9)	2(0.5)	5.304	
	high school	136(36.6)	73(19.6)	6(1.6)		
	≥college	82(21.0)	48(12.9)	1(0.3)		
	total	232(62.2)	132(35.4)	9(2.4)		
Occupation of mother	no	97(26.0)	55(14.7)	3(0.8)	0.257	
	yes	135(36.2)	77(20.7)	6(1.6)		
	total	232(62.2)	132(35.4)	9(2.4)		

<Table 7> Institution responsible to succeed traditional food

		home	school	mass media	government	N(%)
Residence	urban	72(19.3)	35(9.4)	58(15.5)	40(10.7)	
	rural	54(14.5)	33(8.8)	46(12.4)	35(9.4)	0.685
	total	126(33.8)	68(18.2)	104(27.9)	75(20.1)	
Gender	male	54(14.5)	30(8.0)	46(12.4)	48(12.9)	
	female	72(19.3)	38(10.2)	58(15.5)	27(7.2)	10.023**
	total	126(33.8)	68(18.2)	104(27.9)	75(20.1)	
Family type	extended	22(5.9)	15(4.0)	23(6.2)	14(3.8)	
	nuclear	104(27.9)	53(14.2)	81(21.7)	61(16.3)	1.063
	total	126(33.8)	68(18.2)	104(27.9)	75(20.1)	
Age of mother (yr)	31~35	14(3.8)	13(3.5)	11(2.9)	10(2.7)	
	36~40	71(19.0)	38(10.2)	61(16.3)	42(11.3)	
	≥41	41(11.0)	17(4.6)	32(8.6)	23(6.1)	3.739
	total	126(33.8)	68(18.2)	104(27.9)	75(20.1)	
Education of mother	≤ middle school	9(2.4)	6(1.6)	7(1.8)	5(1.3)	
	high school	79(21.2)	37(9.9)	67(18.0)	32(8.6)	
	≥ college	38(10.2)	25(6.7)	30(8.0)	38(10.2)	12.001*
	total	126(33.8)	68(18.2)	104(27.9)	75(20.1)	
Occupation of mother	no	54(14.5)	30(8.0)	40(10.7)	31(8.3)	
	yes	72(19.3)	38(10.2)	64(17.2)	44(11.8)	
	total	126(33.8)	68(18.2)	104(27.9)	75(20.1)	0.683

*p < 0.05, **p < 0.01

<Table 8> The basic knowledge of the traditional food

		N	average score	F-value
Residence	urban	205	5.79±1.34 ¹⁾	0.026
	rural	168	5.77±1.32	
Gender	male	178	5.79±1.34	0.008
	female	195	5.77±1.32	
Family type	extended	74	5.92±1.53	1.006
	nuclear	299	5.75±1.27	
Age of mother (yr)	31~35	48	5.60±1.40	3.360*
	36~40	212	5.93±1.34	
	≥41	113	5.57±1.23	
Education of mother	≤ middle school	27	5.52±1.67	0.600
	high school	215	5.79±1.23	
	≥ college	131	5.82±1.40	
Occupation of mother	no	200	5.75±1.23	-0.472
	yes	173	5.82±1.43	
total average			5.78±1.33	

¹⁾ mean±SD

*p < 0.05

연령에 따른 유의적 차이를(p<0.05) 보이고 있다.

2) 기초지식 점수에 따른 전통음식에 대한 관심정도

기초지식 점수에 따른 전통음식에 대한 관심정도는 <Table 9>와 같다. 전통음식에 관한 기초지식과 관심 정도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p<0.01)를 보여, 전통음식에 관한 기초지식 점수가 낮을수록 전통음식에 대한 관심도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아동들에게 전통음식에 관한 지식과 자부심을 높여주기 위해서 가정에서는 어려서부터 아동들이 우리음식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며 학교에서도 교육과 학교급식을 통해 전통음식에 관한 지식과 인식을 증가시킴으로써 우리의 전통 식생활 문화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3) 인지 정도

전통음식 중 절기음식을 위주로 해서 알아 본, 거주지별 전통음식에 대한 인지 정도는 <Table 10>과 같다. 음식 항목별로 살펴보면 '삼계탕' (4.59점), '오곡밥' (4.17점), '빈대떡' (4.14점)은 4점 이상으로 높은 편이었으며, '청국장찌개' (3.58점), '나박김

<Table 9> Degree of the interest according to the basic knowledge

score ¹⁾	very interest	a little interest	fair	almost no interest	never interest	total	N(%)
high	20(5.4)	63(16.9)	104(27.9)	23(6.2)	8(2.2)	218(58.4)	
medium	10(2.7)	41(11.0)	55(14.7)	11(2.9)	3(0.8)	120(32.2)	
low	1(0.3)	4(1.1)	20(5.4)	4(1.1)	6(1.6)	35(9.4)	20.877**
total	31(8.3)	108(29.0)	179(48.0)	38(10.2)	17(4.6)	373(100)	

¹⁾ high: 7-10/10, medium: 4-6/10, low: 0-3/10

**p < 0.01

<Table 10> Degree of the perception on traditional food by residence

residence foods	urban	rural	average score	t - test
Ogokbap	4.16±0.84 ¹⁾	4.20±0.94	4.17±0.88	-0.439
Cheonggukjang	3.68±1.18	3.45±1.32	3.58±1.25	1.824
Aetangguk	1.44±0.88	1.48±0.97	1.46±0.92	-0.399
Samgyetang	4.55±0.74	4.64±0.77	4.59±0.75	-1.096
Torantang	1.87±1.27	1.71±1.13	1.80±1.21	1.271
Shinsunro	1.49±0.84	1.63±0.89	1.55±0.87	-1.467
Gujulpan	1.53±0.96	1.56±1.00	1.54±0.98	-0.273
Tangpyungchae	1.36±0.78	1.43±0.93	1.39±0.85	-0.831
Mugunnamul	2.30±1.41	2.48±1.61	2.38±1.50	-1.148
Nabakgimchi	3.31±1.26	3.26±1.39	3.29±1.32	0.365
Bindaetteok	4.13±0.99	4.17±1.08	4.14±1.03	-0.371
Susugyeongdan	1.83±1.23	2.67±1.55	2.21±1.44	-5.843***
Jindallaehwajeon	2.77±1.20	3.29±1.34	3.00±1.29	-8.951***
Dasik	1.73±1.22	2.02±1.36	1.86±1.29	-2.135*
Baesook	1.48±0.98	1.63±1.21	1.55±1.09	-1.309

¹⁾ mean±SD

*p < 0.05, **p < 0.001

<Table 11> Degree of the perception on traditional food by gender

residence foods	male	female	average score	t - test
Ogokbap	4.19±0.87 ¹⁾	4.16±0.89	4.17±0.88	0.232
Cheonggukjang	3.54±1.28	3.61±1.23	3.58±1.25	-0.547
Aetangguk	1.55±0.97	1.38±0.86	1.46±0.92	1.800
Samgyetang	4.57±0.72	4.61±0.78	4.59±0.75	-0.549
Torantang	1.90±1.24	1.70±1.18	1.80±1.21	1.568
Shinsunro	1.49±0.83	1.61±0.90	1.55±0.87	-1.232
Gujulpan	1.49±0.94	1.59±1.01	1.54±0.98	-1.049
Tangpyungchae	1.38±0.86	1.41±0.84	1.39±0.85	-0.262
Mugunnamul	2.43±1.57	2.34±1.45	2.38±1.50	0.534
Nabakgimchi	3.31±1.35	3.27±1.30	3.29±1.32	0.349
Bindaetteok	4.16±1.04	4.13±1.02	4.14±1.03	0.325
Susugyeongdan	2.07±1.43	2.34±1.44	2.21±1.44	-1.858
Jindallaehwajeon	2.86±1.30	3.13±1.27	3.00±1.29	-2.019*
Dasik	1.63±1.17	2.07±1.37	1.86±1.29	-3.261**
Baesook	1.53±1.15	1.57±1.03	1.55±1.09	-0.364

¹⁾ mean±SD

*p < 0.05, **p < 0.01

치' (3.29점), '진달래화전' (3.00점)은 3점 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조사되었다. 그러나 애탕국, 토란탕, 신선로, 구절판, 탕평채, 다식, 배숙등은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수경단' ($p<0.001$)과 '진달래화전' ($p<0.001$), '다식' ($p<0.05$)에 대해서는 도시지역 아동보다 농촌지역 아동의 인지 점수가 높게 나타나 거주지역에 따라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또한 성별에 따른 전통음식의 인지 정도는 <Table 11>과 같이 '진달래화전' ($p<0.05$)과 '다식' ($p<0.01$)에 대해서는 여학생보다 여학생의 인지 점수가 높게 나타나 성별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한국 전통음식에 대한 인식 및 지식을 알아보고자 인천광역시의 초등학교(인천지역의 5개 교육청 중에서 동부와 강화교육청 소재) 5학년 학생 373명을 대상으로 2004년 4월 20일부터 5월 7일까지 설문지를 이용하여 조사한 자료로서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자의 거주지역은 도시 55.0% 농촌 45.0%, 성별은 남학생 47.7% 여학생 52.3%, 가족의 형태는 핵가족 80%, 확대 가족 20%이었으며, 어머니의 연령은 36~40세가 56.8%, 학력은 고졸이 57.6%로 가장 많았고, 취업주부의 자녀가 58.4%이었다.

2. 전통음식에 대한 인식에 있어 85% 정도의 학생들이 우리 전통 음식에 대해 보통이상의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유의적인 차이는 없으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취업주부의 자녀가 전업주부의 자녀보다 높은 관심을 보였다. 관심을 갖게 된 동기로는 '매스컴을 통해서'가 39.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남학생과 전업주부의 자녀는 '가정의 어머니를 통해서', 여학생과 취업주부의 자녀는 '음식 만들기 취미'가 관심을 갖게 된 동기로 나타나 어머니의 취업여부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통음식 중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음식으로 76.4%의 학생들이 '김치'를 들었다.

전통음식의 이용횟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이유에 대해 남학생은 '입맛에 맞지 않아서', 여학생은 '만들 시간이 없어서'라고 하여 남·여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62.2%의 학생들은 미래에는 전통음식을 현재보다 더 많이 이용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통음식의 계승·발전은 33.8%가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고, 다음으로 남학생은 '정부', 여학생은 '매스컴'이라고 하여 남·여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3. 한국 전통음식에 관한 기초지식은 10점 만점에 평균 5.78 점으로 낮은 편이었으나, 어머니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 36~40세 사이의 어머니를 가진 학생들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기초지식 점수에 따른 전통음식에 대한 관심정도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여 기초지식 점수가 낮을수록 전통음식에 대한 관심도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통음식에 관한 인지정도를 음식 항목별로 살펴보면 '삼계탕' (4.59점), '오곡밥' (4.17점), '빈대떡' (4.14점)은 4점 이상으로 높은 편이었으며, '청국장찌개' (3.58점), '나박김치' (3.29점), '진달래화전' (3.00점)은 3점 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조사되었다. 그러나 애탕국, 토란탕, 신선로, 구절판, 탕평채, 다식, 배숙등은 인지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전통음식 중 '수수경단'과 '진달래화전', '다식'은 도시보다 농촌지역의 학생이, '진달래화전'과 '다식'은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유의적으로 더 많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때, 아동들에게 전통음식에 관한 지식과 자부심을 높여주기 위해서 가정에서는 어려서부터 아동들이 우리음식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며 학

교에서도 교육과 학교급식을 통해 전통음식에 관한 지식과 인식을 증가시킴으로써 우리의 전통 식생활 문화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Cho, HJ. 2000. A study of high school student's perception and preference of Korean traditional foods in Secheon area. Masters degree thesis. Kunsan National University. pp1-3
- Han YI, Nam GS, Sul MY. 1989. Worsens actual condition and formative factors of dietary habits. Korean J Food and Nutrition, 2(2): 1-7
- Hong KS, Paek SJ, Kim HS. 1999. The difference between generations in awareness and acceptance for the commercial Korean traditional foods. J. Korean living Sci Association, 8(2): 373-385
- Jang EJ, Lee YK, Lee HJ. 1996. The study for consciousness, dietary life behaviors on Korean traditional food. J. Korean Soci of Dietary Culture, 11(2): 179-206
- Jung HS. 1995. A study on relationship between nutrition knowledge and food habit of mothers and food preference and other factors of their elementary school children. J.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3(3): 207-223
- Kang US, Chyun JH. 1998. A Comparison study on the perception and the preference of Korean traditional food in middle school students living in urban and rural area. J. Korean Soci of Dietary Culture, 13(2): 97-105
- Kim JH. 1995. A study on Korean traditional food preference and consumption of female high school students. Korean J. Food and Nutrition, 8(4): 293-300
- Kim JH, Lee MJ, Yang IS, Moon SJ. 1992.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Korean eating behavior. Korean J. Food and Nutrition, 7(1): 1-8
- Kim SM. 2000. Attitudes of the university student in the Kyung-book area on the traditional foods(I) -The evaluation, the utilization and the life style-. Korean J Food and Cookery Science, 16(1): 27-35
- Kye SH, Kim MH. 1994. Evalution on food policy classified by period on Korean. J.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2(1): 165-179
- Lee JS. 1993. Nutrition survey of children of a day care center in the low income area of Pusan - A study on nutrient intake and nutritional status. J. Korean Soci of Food Sci and Nutrition, 22(1): 27-33
- Lee HJ. 1995. Consciousness, knowledge and food preferences for the Korean traditional foods of high school students in Seoul. J.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3(4): 65-23
- Lee HN. 2000. A study on the knowledge, consciousness and preference of the Korean traditional food in male and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Masters degree thesis. Korea University. pp26-31
- Lee KE, Jang YE, Kim WK. 1993. A study on university student's knowledge and opinion of the Korean foods -The evaluation and option for improvement on the Korean traditional foods-. J.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1(4): 183-191
- Lee MY. 2002. A study in elementary school childeeren's consciousness and preference of Korean traditional food and fast food. Masters degree thesis, Inha University. pp16-17
- Min YH. 1999. A Study on consciousness and preference of the Korean food: focused on the elementary school children in Inchon. Masters degree thesis. Inchon University. pp8-20
- Oh YS. 2004. A study in student' awareness and preference for Korean traditional food at elementary school. Masters degree thesis. Sunchon National University. p14
- Park MS, Kim KE. 1991. A study on high school girls consciousness and food preferences of the Korean foods. J.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3(1): 163-177
- Park YS. 1998. Perception of traditional foods in Hansan-Do area. Korean J. Food and Cookery Science, 14(5): 516-534
- Yang IS, Kim EK, Bae YH, Lee SJ, An HJ. 1993. Development of nutrition education program that promotes eating behavior of preschool children-Especially focused on being familiar with vegetable-. J. Korean Soci of Dietary Culture, 8(2): 125-137
- Yim GL, Kim SH. 1986. A study on the effect of family environment on the dietary quality of adolescence. J. Korean Soci of Food Sci and Nutrition. 19(1): 23-31
- Yoo HY. 2003. A study on the recognition and preference of Gimchi, Korean traditional food: focused on the comparison of generational differences. Masters degree thesis. Kyonggi University. pp48-57